

I. 動向과 展望

1. 7月中 産業活動 動向

- 動向 : 6月 以後 景氣 上昇勢 鈍化 持續
- 評價 : 이를 景氣變動上의 景氣鈍化 信號로 評價하기는 어려움.

-生産: 增加率 鈍化

- 7월중 産業생산 전월 대비 4.5% 감소
- 노사분규에 의한 생산차질 3.29%p를 제외하면 1.21%p 감소
- 노사분규가 많았던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도 7.0% 증가에 그쳐 증가율 둔화 (상반기 증가율: 10.5%)
- 상반기중 증가세를 유지하던 경공업 생산도 2.1% 감소하였음 (6월 3.1% 증가)

-投資: 混調 樣相

- 민간부문 기계발주: 전월대비 18.7% 감소
- 제조업부문 기계발주: 전월대비 23% 감소
- 반면에 기계류 수입허가는 전월대비 20.9% 증가 (전년동월대비 134.3% 증가)

-消費: 急激한 增加勢

- 7월중 내수용 소비재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1.9% 증가
- 도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8.3% 증가 (전월대비 1.1% 증가)

-輸出入: 두드러진 輸入增加勢 記錄

- 수출은 8월중 16.8% 증가 (94.1-8 평균: 13.4% 증가)
- 수입은 8월중 30.1% 증가 (94.1-8 평균: 16.6% 증가)
- 수입승인액은 8월중 전년동기대비 55% 증가

-物價: 8月末 現在 年末 抑制線인 6.0% 記錄

-景氣 評價

- 투자 증가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
- 투자부문이 향후 어떻게 변동되는가가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임
(한 상 완)

2. 株式 市場

- 動向 : 상승 종목 제한속에 최고치 경신
- 展望 : 단기 조정 장세하에 수익률 하락 예상

-動向:

-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이 풀리면서 종합 주가 지수는 계속적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였고, 9월 9일 5년여만에 일시적으로 1,000 포인트를 돌파하였음.
- 그러나 상승 종목은 삼성전자, 포항제철 등 경기 관련 초고가 우량주와 몇몇 실적 호전 종목에 국한되었음.

-展望:

- 최근 증시의 수급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어서 증시 여건은 개선 되고 있지만, 단기적으로 급상승을 보인점을 감안할 때, 추석을 전후하여 960 전후까지의 하향 조정 장세가 전망됨.
- 정부의 통화 관리가 탄력적으로 운용됨에 따라 시중 자금 경색이 완화되었고, 고객 예탁금도 2조 9천억원 대를 회복하였음. 이같은 수요 조건 호전에 비해 대규모의 공급 요인은 없는 상황이어서 증시활황세가 지속될 전망이다.
- 한편, 제반 기술적 지표들도 강한 상승 신호를 나타내고는 있지만, 시장의 내부 세력을 측정하는데 유용한 ADL이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 조정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음.
- 더욱이 정부는 주가상승에 따른 과소비가 물가상승과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활황을 나타내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통제 움직임도 보이고 있음.
- 제반 여건을 종합해 볼 때 이번 주와 다음 주의 주식 시장은 단기 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.
- 투자 전략으로서 그동안 급상승한 고가 우량주로는 이익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고, 실적 호전이 반영되지 않은 종목과 은행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아야 할 것임.

(강 천 모)

3. 債券 市場

- 動向: 9월 9일 현재 회사채 수익률 13.75%
- 收益率 上昇 原因: 기관 매입 자재, 은행 기준, 기업 설비자금 수요 증대
- 會社債 收益率 短期 展望: 13.50% - 14.0%

- 動向

- 會社債 수익률 3年 滿期는 8월 30일 이후 6일간 13.55% 수준에서 횡보하다가 은행 기준 마감일 도래와 회사채 발행 물량 확대 및 機關 매수 위축으로 9월 9일 연중 최고치인 13.75% 수준까지 상승하였음.
- 통화채 수익률 또한 여타 금리의 상승에 따라 지난주 초 12.20% 수준에서 주말에는 12.30% 수준으로 상승하였음.

- 收益率 上昇 要因

- 機關 買受 忌避: 投信社를 비롯한 證券社 등의 기관 투자자들은 추석 이후 정부의 통화 관리가 예상됨에 따라 채권 수익률 추가 상승을 예상하여 매수 기피 현상이 두드러졌음.
- 銀行 支準: 정부의 秋夕 資金 4조 원 수준의 공급 결정과 은행권의 양호한 자금 사정으로 큰 무리 없이 끝났으나 기준 마감일인 7일 은행의 채권 매입 여력이 떨어져 수익률 상승을 초래했음.
- 企業의 設備資金 需要 増大: 급속한 경기 회복에 따른 設備投資資金 수요가 전년에 비해 약 35%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 수요 원인이 됨.

- 展望

- 추석 이후 풀린 자금에 대한 通貨當局의 회수 우려에 따른 기관의 매수 기피가 지속되어 채권 수익률의 소폭의 상승세가 예상됨 (13.50% - 14.00%).
-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하반기 通貨供給 規模 10조 원중 해외 부문의 통화 공급 50-60억 달러를 제외한 실제 국내 통화 공급은 약 5조 원에 불과해 정부의 통화 관리가 어려워져 연말에 갈수록 채권 수익률의 변동성이 증대될 것임.

채권 종류	6/30	7/31	8/31	9/5	9/6	9/7	9/8	9/9
회사채(보중)	12.40	12.71	13.55	13.55	13.55	13.60	13.75	13.65
통안채	12.10	12.20	12.20	12.20	12.25	12.25	12.30	12.30

(박 중 곤)